

신세계·롯데 ‘복합쇼핑몰 계획’ 해 넘기나

신세계, 22일 어등산 소송 결과 감안 시기 저울질

롯데, 뚜렷한 움직임 없이 참여 여부 놓고 ‘숙고중’

유통 빅3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가장 먼저 전남·일신방직 터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그룹은 올해 안에 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8월17일 어등산 부지에 가칭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는 매머드급 개발 구상안을 내놴다. 신세계 측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관련 사업 계획서를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광주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오는 22일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를 둘러싼 광주시와 서진건설 간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제출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신세계 측이 올해 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당초 사업성과 부지 등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가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올해 안에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초 광주 패밀리랜드 부지를 실사하면서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롯데월드’가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 관계자가 지난달 중순께 “사업 추진이 확정될 경우 광주

시가 제안서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현대·신세계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연내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그룹 내에서도 복합쇼핑몰 추진 입장과 관련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데다, 사업 참여 여부 발표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제출에 별도 기한을 두지 않고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롯데그룹 차원에서라도 속고

에 속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가 현대나 신세계와 달리 고심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15일 임원 승진 인사에 이어, 내년 초 임원 이동이 남아 있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그룹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실제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신세계와 롯데 모두 실제 복합쇼핑몰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신세계프라퍼티와 롯데그룹이 계속 접

촉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신세계·롯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각 업체 간 경쟁 관계가 존재하고 민감한 영업기밀 등이 포함돼 있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절차 등에 대해 질문할 경우 동일하게 설명할 뿐, 일정 조율이 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의 질문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다. 광주시가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은 만큼 업체들도 이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양시원기자



희망 배달하는 ‘몰래 산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새 앞둔 20일 오후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몰래 산타’들이 어린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 북구 용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희망산타는 관내 돌봄 이웃 세대를 방문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김애리기자

무등산 정상 내년 9월 ‘시민 품으로’

광주시·공군·국립공원공단 상시 개방 업무협약

무등산 정상이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된다. 군부대 주둔으로 출입 통제가 시작된지 56년만의 일이다.

광주시는 20일 “이날 공군 제1미사일 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해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1966년 공군 주둔으로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이 2023년 9월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협약서에는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역할 분담 ▲세부적인 운영 방

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상시 개방 탐방로 설치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은 2023년 2월 상시 개방 탐방로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부대 철책 이설, 탐방로 설치 등을 마치고 오는 2023년 9월 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1966년 무등산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한 이후 군과 협의해 2011년 정상을 처음으로 일시 개방했다.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5차례 군부대 개방 때 무등산 정상을 일시 개방했다. 무등산 정상을 탐방한 등산객은 총 47만5천명이 넘는다.

강기정 시장은 “1966년 12월20일 무등산 정상에서 군사 업무를 개시한 지 56년이 되는 오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협약을 맺게 돼 무척 뜻깊다”며 “기술과 안보 체계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되면 온전히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촉구

조오섭 “22일 서울시 2차 청문회 요식행위 안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차 청문회’가 단순히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일정·장소·위원 명단 등 세부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 측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 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은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현산의 부실 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 수사 결과를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가 현행법상 현산 본사의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처분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동북댐

저수율

27.18%

물 공급 가능 일수 : 147일

Today

호남학산책...기대승 ‘누정시’

14면

세상의 모든 불효녀를 찾습니다

15면

MLB 홈페이지 이정후가됐다

16면

희망2023나눔캠페인

성금 접수 계좌

광주시민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전남시민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함께 잘사는 포용도시
시민중심의 열린도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광양시
광양 매화마을

CMYK